

## 13장 벤야민의 소설론과 기억에 대한 단상들 2

### ◆1교시: 벤야민의 미메시스와 프루스트의 소설 세계

#### ▲ 벤야민의 미메시스 - 프루스트를 통해 읽어 낸 두 가지

그러한 프루스트의 소설세계를 벤야민은 두 가지 지점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특수화 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메시스의 개념입니다. 벤야민이 읽어내려는 것은 프루스트의 문학세계에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것으로 미메시스입니다. 신체에 대한 미메시스, 또 하나는 사회에 대한 미메시스입니다.

그러므로 벤야민의 시선에 의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신체와 사물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당대 부르조아 사회를 비판하는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신체적 미메시스와 사회적 미메시스로 읽어내려 합니다. 신체적 미메시스는 벤야민이 사물의 디테일에 대해 집요하고 병적인 시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대적인 세계나 개인의 상황이 경험의 상실이라고 한다면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근거에서 이야기 할 때 사물과 개인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짐으로 즉 아담의 언어가 상실됨으로 인해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메시스적, 비지각적 유사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벤야민은 어떻게 프루스트의 언어가 이러한 관계들을 복구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벤야민이 보기엔 미메시스입니다. 모방충동 즉, 그것으로 다가가 하나로 되고자 하는, 물론 프로이트는 일종의 퇴행충동으로 죽음충동으로 봅니다만, 벤야민에게는 눈으로 보이기엔 파편일 뿐이지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유사성의 관계 친화성의 관계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가시돈힌 장미 이야기 놀라운 감성과 침투력, 장미의 잎 사이의 관계 등등 만이 아니고, 여러 소리나 냄새 접촉 아주 작은 디테일을 통해서 무의지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익 한 조각과 차 한잔으로 콰브로이의 전체가 다 떠오른 것처럼, 기억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이 전체적으로 결속됩니다.

일반 기억에서는 소외되었던 기억조각들이 무의지적 공간 속에서는 친화적으로 소통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프루스트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문학에는 아주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데 대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소통하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의 소설의 결정적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파티에 초청되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던 프루스트는 파티장 옆에서 하인이 세팅을 하다가 스푼이 접시에 딸각하고 닿는 소리에 예전에 기차여행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기관사가 망치로 선로를 두들기던 소리와 연관되면서 그때의 상황이 한꺼번에 떠오름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기억해 내지 못했던 상황을 소리나 냄새 하나로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비지각적 유사성의 공간이 형성되고, 그 공간 속에서 부분으로 존재했던 것이 전체가 되어 돌아오면서 과거의 사실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해 이렇게 잃어버린 경험의 세계를 복구해 내고 있다고 벤야민은 이야기 합니다.

결국 그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내면, 가장 마지막 무의식 공간까지 내려갑니다. 무의식이란 프로이트에서 나온 것이지만 프루스트는 무의지적 공간으로 부르고 그 기억까지 내려갑니다. 벤야민의 언어철학에서 보자면 인간이 신과 사물이 소통할 수 있었던 아담의 언어와 같이 프루스트의 소설은 마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다 마치 무거운 무엇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수구(고기잡이)가 무의지적 공간이라는 바다 속으로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고 있다. 그 느낌은 엄청난 무게 때문에 긴장을 느끼면서, 바다 속에 무엇이 가득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의 세계이며 그것들이 무의지적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의 언어는 타락한 기호의 언어지만,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해저에서 기호가 타락하기 이전의 무엇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벤야민은 말합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무엇을 끌어올리고 있다. 프루스트의 소설의 힘은 긴장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프루스트의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프루스트라는 늙어빠진 어린애는 자연이란 이름의 어머니의 젖무덤에 기대어 꿈을 꾸고 있으나 그가 꿈꾸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벤야민은 무언가를 복구하려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화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적인 것 밖에 없어요.

역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루스트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있다는 것만을 알려줍니다. 어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아요. 벤야민이 프루스트를 통해 알려주려는 신체적 미메시스는 격리된 신체와 사물들이 옛 아담의 언어라는 언어영역 속에서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회복되는 공간 즉 무의지적 공간에서 무엇이 가득 들어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 ▲ 사회학적 미메시스

또 하나는 이렇게 프루스트를 존재론 적으로만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읽어내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루스트 특유의 미메시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미적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를 비판하는 사회학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드뢰피스 사건 같은 정치적 사건도 그렇고 귀족사회 같은 당대 부르조아 사회, 살롱컬처를 그가 사용하는 용어로 스노비즘, 스놉 소사이어티로 규정하였습니다. 스놉은 유럽 제국주의 시대 특유의 현상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도 한때 무슨 잡지에서 스놉으로 규정한 담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프루스트가 있었던 사회는 그러한 사회였고, 자신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나타냈는데 이를 벤야민은 사회학적 미메시스 개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2교시: 베르그송이 말하는 다양한 기억들

### ▲ 베르그송과 프루스트의 기억

베르그송의 기억개념과 프루스트의 기억은 만납니다만 차이가 있어요. 베르그송의 기억에서 프루스트가 모티브를 얻었지만 서로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베르그송에게도 기억의 층위가 밑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개념과 연결시킵니다. 기억의 에너지는 내가 원하면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자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의 두레박을 내리지 않는다고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데 비해, 프루스트에게는 우연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무의지적 기억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켈트 족의 전설 중에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물들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내가 그것을 알아보거나 그것이 나를 알아보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무의지적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오지 않으면 즉 냄새나 소리나 맛과 같은 것이 오지 않으면 결코 만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베르그송은 철학자이므로 주체를 중시하고 주체의 자유 면에서 다루고 있다면, 프루스트는 행운의 문제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오면 만나게 되고 계기가 없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주체의 한계성 때문에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역설적으로 보면, 주체가 주체이기를 주장하는 한 결코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후발성, 뒤늦음, 지각을 통해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행복에 대한 욕망 그것이 프루스트의 글쓰기 욕망인데 다른 양식의 기억, 과거가 현실 되기라고 하는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을까?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의지적 경험이 있어야만 하므로 늘 걱정합니다. 나는 이제 글을 다시 쓸 수 있을까?라고 마지막에 씁니다. 그것이 지금 내 곁에 있지만 마지막에야 알 수 있었습시다.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 좀 쓰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며 라캉식으로 말하면 부재와 실재 정도 되겠어요. 포우의 편지가 내게 있을 때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찾으면 딱 데 있습니다. 그 로직과 유사할 수 있어요.

### ▲ 사회학적 미메시스

벤야민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사회학적인 미메시스입니다. 평생 프루스트가 한 일이 살롱을 드나들고 고급 쿨걸들이 있는 곳에 드나들었죠. 즉 고급 유곽인 것입니다. 그가 살롱을 드나드는 이유는 계급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의 귀족, 근세는 부르조아 계층이 귀족계급을 대체합니다.

귀족들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락하면서 팔아먹으며 살게 됩니다. 이 귀족계급과 부르조아 계급이 이때 있었는데, 몰락하는 계급과 상승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르조아 계급은 귀족계급을 타파하며 생긴 것인데 귀족계급을 모방하는 허위의식을 보입니다. 귀족의 생활로 퇴행하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전형적인 인물로 그랑 부르조아의 자식이었어요. 그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 감각이 섬세하다.(심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당대의 타락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가장 화려한 문화를 보입니다.

로마가 몰락하기 전에 가장 화려했다고 합니다. 당대에도 그랬는데 살롱이 원래는 훌륭한 문화공간이지만 내용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귀족 부인들 공작부인, 후작 부인들이 사교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심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화가나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연주를 듣고 고급 음식을 먹으며 담론을 나눕니다.

다른 살롱사이에도 암투가 있어서 귀족들 부인 간에 교양이라는 암투를 벌이며 허위의식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이 교양으로 나중엔 종교로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다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허위의식이 가득했지만 세련된 문화의식이 살롱에 있었기 때문에 프루스트는 그것을 끊임없이 모방하려 했어요. 귀부인들은 완벽하게 섬세하고 아름답고 가벼운 옷을 입고,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교양에 가득 찬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족 살롱이었습니다. 프루스트가 그 살롱에서 그것을 관찰하는데 대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 비판하지 않고 귀족이 되고 싶어 했었다고 벤야민은 봅니다. 부르조아 계급에서 귀족사회로 들어간 사람은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려 했는데 프루스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벤야민은 말합니다. 귀부인의 옷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장미를 묘사하듯이 프루스트는 매우 섬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귀족이라고 착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3교시: 다양한 미메시스와 살롱에 대한 미메시스의 다양한 특성

#### ▲ 프루스트의 미메시스 -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방법으로 접근하나 글쓰기를 통해서 벗어남

자기가 스스로 귀족이라고 착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루스트 식으로 말하면 귀족사회를 스노비즘으로 나중에 이야기 하는데 스놉이란 사람들은 절대 순수 소비자다. 노동을 안 하면서 완벽하게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의상 같은 곳에서 나타난다. 심미성의 극치를 나타내는 귀부인의 의상은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임에도 노동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옷의 조각들은 끊임없이 섬세하게 봉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동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절대 순수 소비의 대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벤야민이 보기엔 프루스트의 문장이 이와 닮았습니다. 놀랍도록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이렇게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려 하기위해 그런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살롱을 안다녔다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요? 노동의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육체의 흔적을 완전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력이 없는 대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스놉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이 완벽하게 제외된 풍요 속에서 나옵니다. 노동의 흔적, 신체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려는 허위의식이 있습니다. 이 허위의식은 철학적으로는 절대 정신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놀라운 자기착각이나 자기목적성은 정신으로 완벽한 세계를 만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대적 가벼움 즉 중력이 없는 다시 말해 무게감이 없는 '정신'을 스놉 사회가 원했던 것입니다.

정신이란 완벽하게 안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보면 카드문제로 신용불량자를 많이 양성했는데 그것은 경제적 감각의 혼란을 통해 왔었어요. 프루스트의 살롱이 이런 문제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미메시스가 어떤 특성을 지니냐 하면, 결코 '내가 미메시스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미메시스가 아닙니다. 그는 귀족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그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족 자체도 아니고, 귀족 사회에 입장이 허용된 부류주아도 아니고 그 귀족의 살롱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랍니다. 하인은 살롱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자체에서 보면 하인은 계급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귀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프루스트가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살롱에 대한 그의 미메시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첨, 호기심이 그것입니다. 아첨이란 끊임없이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자기를 낮추는 단계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 융합되고 융해되려는 점에서 그의 미메시스는 아첨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다른 시선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개가 만나게 되면서 그 특유의 사회학적 미메시스의 특성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곤충이 배추 잎에 짝 달라붙어 있을 때

그 벌레는 배추 잎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잎과 똑같이 되어야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잎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 배추 잎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살롱은 썩어가고 있는 죽음의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지만 귀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화려해지고 허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배추벌레는 배추 잎이 그렇게 될 때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배추 잎이 죽을 때 미리 알고 떠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루스트식으로 말하면 살롱 컬처에 속하려는 선망 자체 행동자체가 소속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치 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비밀을 눈치 채게 하려면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소속되려하는 모방에만 그친다면 썩은 진을 먹고 배추벌레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메시스는 다릅니다. 가장 그것에 가까이 갈기 때문에 그것이 몰락하기 직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즉 글쓰기로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회학적인 미메시스입니다. 벤야민이 말하는 그의 미메시스란 변화하는 사회의 운명을 포착해내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며,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망에 의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벤야민이 말하길 그는 근본적으로 생에 대한 충동이 있었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살롱 컬처 속으로 가장 밀접하게 미메시스 했지만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카치의 방식대로 말해보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나 타락한 것이 아니라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몸 속으로 그물을 던져 살롱 컬처 속에 있던 절대적 정신이란 현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된 그 무엇, 즉 육체를 제거하고 노동을 제거하여 완벽하게 죽음을 제거하려는 정신화 과정에서 빠져있었던 무엇을 추구합니다. 이미지라는 것을 통해 침대라는 배 위에서 그것을 건져내려 했습니다. 프루스트적 미메시스란 무엇인가? 근대 소설이 이야기의 타락의 극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살고 있는 심해에 다달아 다시 그것을 건져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벤야민이 말하였습니다.

그 텍스트의 이미지들은 우리들이 잃었다고 생각한 물고기들이나 것 입니다. 바로 미메시스 때문에 건져낼 수 있었다고 벤야민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유 시스템에서 가능했는데 그가 썼던 프루스트의 이미지라는 작은 텍스트 속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란 개념으로 프루스트의 세계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엔 카프카와 미메시스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